

강진군, '나무은행' 운영 통해 예산 절감

개발 과정 제거 수목 중 조경적 가치 나무 기증 받아 이식 후 관리 지난해 316주 수집해 3800만원 예산 절감...산림자원 보호 기여



강진군은 지난 15일 나무은행 운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거할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이식 후 관리하고, 향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증된 수목은 가로수와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수목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316주를 수집하였으며, 국도 18호선 가로수 보식사업 등 214주를 활용해 약 3,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진도군-전남과학대, 지역특화 인력 양성 드론·전통주·치매예방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도군이 전남과학대학교와 손을 잡고 지역특화 전문 인력 양성을 시작한다. 양 기관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7일 개최하고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군은 전남과학대학교와 함께 평생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드론, 전통주, 커피 바리스타, 치매예방지도사 등의 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대학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은철 총장(전남과학대학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분야가 성장하는 가운데 전남과학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해 평생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코로나로 지친 마음, 글쓰기로 치유합니다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시창작 교실·시조문학교실 수강생 모집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은 새봄의 시작과 함께 군민 글쓰기 강좌를 운영한다. 2017년 12월 개관한 땅끝순례문학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계된 시설로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백련재 문학의 집이 있다. 군은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3월 18일부터 시창작교실과 시조문학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된 시창작교실은 해남뿐만 아니라 장흥, 강진, 영암 등 인근지역에서도 수강생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며, 문학관의 대표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쓰기의 교과서라 불리는 '시'의 저자이자 제1회 조태일 문학상 수

상작가인 이대흠 시인이 강의를 맡아 직유법을 통한 시의 기초 배우기, 은유와 상징을 활용한 자작시 쓰기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 창작 교육을 실시한다.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조문학교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시문학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마련된 시조문학교실에서는 현대 시조의 이해, 시조쓰기의 실제와 창작 등을 배운다. 6월까지 매주 금요일 3시에 열리며, 윤상현, 노창수, 임성규 시인의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문학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각 수업 당 20명으로, 수업장소는 백련재 문학의 집 다목적실이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활력'

올해 27억 원 투입...중앙시장 활성화·집수리 사업부터 시작

완도군은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외에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 예산 등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그중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도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134억 원을 투입, 올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주거 지역 집수리 사업 및 스마트 생활공간 구축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어울림센터 및 역사쉼터 조성 사업 등이다. 올해는 27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은 중앙시장 일부를 군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집수리 사업은 완도읍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대상지 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노후 주택 정비(16호)와 빈집 철거(13호) 희망 가구를 모집하여 선정한다. 완도군은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9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1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종실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집수리 지원 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061-553-0799)와 완도군 지역개발과(061-550-5603)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서울시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확대...전용 305톤 냉장차량 구비

강진군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 농산물의 공공급식 사업을 확대한다. 군은 군동면 소재에 330㎡(1동) 규모의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고 저온저장고와 기자재, 정육작업장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강진산 농축산물을 동작구 어린이집, 복지회관 등 공공급식 시설에 납품하고 있다.

올해는 농산물 직배송 공급을 위해 전용 3.5톤 냉장차량을 구비해 기존 물류 배송체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식자재 변질 등 식재료 관리의 문제 요소를 보완하여 공급한다. 또 공공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 수집 및 물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